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위해 피, 땀, 눈물을 흘린 70인 제자 예레미야 -복음으로 여는 예레미야- 예레미야 1:1-7, 디모데후서 1:9

정윤돈 목사님

* **렘1:1-7** 베냐민 땅 야나돗의 제사장들 중 할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가 다스린 지 십삼 년에 여호와와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십일년 말까지 곧 오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거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 **딤후1:9**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주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지어주시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영원히 행복한 존재로 지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 불순종하여 사단에게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성삼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영접할 때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회복할 뿐 아니라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를 받으며 힘을 얻고 내가 생명 걸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응답과 해답을 얻으며 내가 도전해야 할 절대미션을 발견하는 축복된 시간으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겨울이 되어서 램넛트들과 스키 타려고 스키를 배우고 있다. 스키를 배울 때, 스키장이 높으니가 무전기를 귀에다 이어폰처럼 끼워서 쓴다. 무전기로 선생님이 “손을 당기세요,” “어깨를 펴세요”라고 이야기를 한다. 5명이나가 “누구씨 출발하세요,” “누구씨 출발하세요”한다. 저한테는 “목사님 출발하세요”한다. 제가 목사인 걸 다 안다. 같이 배우는 분들과 리프트타고 올라갈 때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또 제가 요즘에는 윈드서핑 전도를 해서 50대 되는 분과 4월, 5월 되면 같이 가서 갔다. 친하게 지내면서 전도하려고 한다. 여러분도 어느 현장이든지 전도현장으로 삼고, 새로운 현장으로 가라. 운동하는 게 힘들지만 갔다 오면 좋다. 오르간 연습하시는 관사님께서는 오르간 연습하러가기 전에는 힘들고 어렵지만 하고 나서는 소리가 좋고 기쁘다고 했다. 피, 땀, 눈물이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거저 얻는 것은 없다. 공짜는 없다. 뭘가 도전할 때 피, 땀, 눈물을 흘려야 하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나도 살릴 수 있다. 비트코인과 주식도 쉽게 하는 게 아니다. 매형이 주식으로 먹고 있는데, 주식을 하면 점심도 안 먹고 폐장할 때까지 계속 그것만 본다. 저는 주식을 잘 모르지만 중간에 꼭 투자할 시간과 타이밍이 있다는 것이다. 하루에 한, 두 번 그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다. 주식도 그만큼 공부하고 피, 땀, 눈물을 흘릴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소문만 듣고 하는 사람은 망한다. 부동산도 잘하는 분들은 계속 정보를 알아보고 발품을 팔아서 한다. 소문 듣고 하면 투기꾼 밖에 안 된다. 결국 다 망한다. 공짜는 이 땅에 없다. 피, 땀, 눈물을 흘리는 결과는 이름 담고 행복하다. 그게 진짜다. 구원도 그렇다. 예레미야는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리스도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피, 땀, 눈물을 흘리셨다. 이 땅은 천국이 아니다. 어릴 때 피, 땀, 눈물을 흘리면 이 땅에서도 에덴의 시간이 온다. 그러나 대충 살고 하면 지옥같이 살게 된다.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주역이 되어서 도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노예, 포로, 속국생활을 해야 한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내가 헌신하고 전도하고 메시지 전하고 다라방하면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지만 맨날 끌려 다니고 전도하라, 가져, 훈련 받아 하면서 끌려 다니면 행복한 신앙생활이 아니다.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도전한다. 그리고 새로운 것에 도전해서 피, 땀, 눈물 흘리는 것을 축복으로 알자. 지금 헌신하고 헌금하는 게 돈을 그냥 드리는 게 아니다. 도둑질 한 게 아니라 시간과 노력을 통해 얻은 예물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가 된다. 헌금이 그냥 돈이 아니다. 누군가의 피, 땀, 눈물이 있는 물질이다. 그걸 하나님은 30배, 60배, 1,000배, 10,000배의 하나님 나라로 갚아주신다.

오늘은 예레미야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한다. 예레미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세우셨다”는 의미이다. 예레미야는 20대 초반의 램넛트 청년 시절에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약 40년 동안 반대와 핍박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유다 왕국시대의 선지자였다. 유다 왕국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왕국을 향해 예언했다. 20세 젊은 나이였다. 20세가 젊고 어리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 시절에 왕이 되고 지도자가 되고 선지자로 세움 받은 사람들이 있다. 어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과거에 시골에 가보면, 주일학교 선생님이 없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고학년이 저학년 교사를 하고, 중학생이 교사하고 했다.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헌신하는 사람이 되고 목회자도 되었다. 어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교회가 커지면 작은 교회에서 봉사했던 사람이 예배만 드리고 가만히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더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할 길을 찾아야 한다. 어느 정도 규모가 생기면 시키지 않기 때문에 헌신하지 않을 수 있다. 누군가 부탁을 할 때는 적극적으로 붙잡아야 한다.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게 그것이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피, 땀, 눈물을 흘리며 경고의 말씀과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였다. 그러나 유다 왕국의 왕들과 기성세대들은 예레미야의 경고를 무시하였고 결국은 애굽과 앗수르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강대국들의 속국과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다. 여러분에게 강단에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신앙생활을 잘 하라고 할 때 여러분은 붙잡아야 한다. 특히 구약의 내용을 보면 꾸지람과 훈계가 많다. 잠인 12장 1절에 보면 훈계를 멸시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고 했다. 강단에서 훈계를 할 때는 언약으로 붙잡고 계속 도전해야 한다. 인약을 놓치면 어느 순간 후대들이 노예생활하게 된다. 이스라엘 민족처럼 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나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 그렇게 들을 때 내가 정화되고 경건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재앙과 저주를 막고 후대들에게 축복을 전달할 수 있는 영적 축복의 시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때 예레미야의 말씀을 마음에 품은 후대 램넛트들이 있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1차 바벨론 침공 때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린 나이였지만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대로 나라가 멸망하는 모습을 봤다. 걸심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멸망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결심을 했다. 그 한 팀이 다 살았다. 전도사 예레미야의 헌신은 바벨론포로 이후로도 계속해서 영향을 주었고 결국 이스라엘은 회복되었다. 예레미야는 너무나도 답답했을 것이다. 40년 동안 메시지가는데 아무도 안 듣고 계속 불신앙했다. 그러나 그게 결국은 효과가 없었던 게 아니었다. 결국은 다니엘과 세 친구와 숨겨진 제자들이 실천하고 나라와 민족을 살렸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후대를 위하여 흘린 피, 땀, 눈물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1.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예레미야 시대의 역사적인 배경과 예레미야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연도의 순서대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역사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후반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포로 전과 포로 이후의 역사를 이해할 때 예레미야의 상황을 잘 알아야 그 흐름을 따라가기까지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BC.722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앗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하였다. 포로로 다 끌려갔다. 남왕국 이스라엘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도 불신앙했다. 문제 생기는 사람들 주변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은 조심해야 한다. 아버지가 알코올중독으로 고 통병이었다면 여러분은 그렇게 살지 않아야 한다. 주변의 일들을 보면서 나의 것, 나의 언약으로 붙잡아야 한다.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 후로 약 100년 후인 BC.627년에 예레미야는 어린 청년의 나이에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의 소명을 받았다. 예레미야서 1장 6절에 보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라는 내용을 볼 때 예레미야는 당시 어린 나이였다는 것을 짐작 할 수 있다. 성경학자들은 20대 초반으로 보고 있다. 이때가 요시아 왕 13년이었다.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은 지 약 5년 후인 BC.622년에 요시아 왕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다. 그 후로 1년 후인 BC.621년에 요시아 왕은 종교개혁을 실시하였다.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이 묻혀있었다가 예레미야가 일어날 그 시점에 말씀이 발견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성취되지 못한 말씀이 발견되고 응답이 일어나는 주역으로 쓰실 것이다. 하나님이 축복을 숨겨왔는데 하나님이 그걸 찾게 만드신다. 그 인물이 요시아 왕이고 예레미야였다. 하나님은 그 팀이 만들어질 때 새로운 종교개혁을 이루셨다. BC.612년 새로 일어난 강대국 바벨론이 앗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를 점령하였다. 이 니느웨성을 함락시키는 것을 보고 남쪽 애굽의 왕이 앗수르를 무너뜨리는 바벨론을 빨리 쳐야겠다고 생각했다. 애굽의 바로 느고라는 왕이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요시아 왕에게 바벨론을 치기 위해 길을 열어달라고 했다. 요시아 왕이 상황을 잘 모르고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았다. 길을 내줄 수 없다고 했다. 요시아 왕이 애굽과 싸웠다. 그리고 여기서 요시아 왕은 전사한다. 국제 정세를 잘 몰랐던 요시아 왕은 잘못된 판단으로 애굽에 대항하다가 뜨깃도에서 죽고 말았다. 우리는 세계복음화 해야 하기 때문에 세계적인 흐름을 알아야 한다. 지금은 반도체시대, ISI시대다. 삼성이 스마트폰 사업을 하지 않았으면 큰 회사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 한국은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다. 중국에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데, 미국과 중국이 사이가 안 좋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자기 편을 하라고 한다. 입장이 애매하다. 한국은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다. 대한민국은 명나라 한나라부터 계속 줄을 잘 탔다. 지금도 잘하고 있다. 지도자들은 그런 부분들

을 잘 알아야 한다. 그런 나라 중 하나가 스위스다.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스위스를 못 공격했다. 스위스는 나라의 힘이 약하니 자기의 힘을 강하게 키웠고 어디에도 휘말리지 않고 영세중립국이 되었다. 스위스는 지금도 집집마다 총을 다 가지고 있다. 국민이 하나로 똘똘 뭉쳐있다. 주변에 강대국이 많으니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다 죽을 때까지 싸운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다. 윈레스 되는 게 중요하다. 교회, 교단과 모든 조직과 나라도 마찬가지다. 하나되는 게 중요하다. 요시아 왕은 복음은 있었는데, 세계화되지 못해서 죽고 말았다. 요시아 왕이 죽은 후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대를 이어서 남유다의 왕이 되었다. 이때부터는 애굽의 속국처럼 되어버렸다. 여호야김 왕은 애굽에게 조공을 바치며 순종해야 했다. 그 후로 BC.605년에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은 애굽을 대파시켰다. 이후로 애굽은 급격히 쇠락하였다. 이때부터 애굽은 지금까지도 힘이 없는 나라가 되었다. 제가 이집트 피라미드를 가졌다. 3천 년 전과 비슷하게 산다. 박물관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애굽은 쇠락해지고 바벨론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야김 왕은 애굽과 BC.601년에 동맹을 맺는다. 이 모습을 보고 BC.605년에 바벨론은 유대를 침공하여 많은 지도자들과 자녀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이때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다. 이것을 바벨론의 1차 침공이다. 애굽의 속국에서 바벨론의 속국이 되었다. BC.601년 여호야김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반대와 경고를 무시하고 애굽과 동맹을 맺은 것에 분노한 바벨론은 BC.597년에 2차로 예루살렘을 침공했다. 이때 여호야김 왕을 죽이고 그의 아들 여호야킨이 왕이 되었으나 3개월 만에 폐위를 시키고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을 세웠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 또한 바벨론에 대한 무모한 도전을 하다가 다시 BC.586년에 바벨론의 3차 침공이 이루어진다. 이때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고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두 눈을 뿔한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 평생 감옥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때 예레미야는 이 모든 사건을 목격하고 애굽으로 간 것으로 보고 있다. 예레미야는 마지막까지 40년 동안 말씀을 안 듣고 결국은 망하는 이스라엘을 본 것이다. 예레미야서 마지막 장인 52장에는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과 바벨론으로 끌려간 여호야킨 왕에 대한 기록으로 마치고 있다. 예레미야 52장 10절로 11절에 보면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 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바벨론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눈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다음은 예레미야 52장 31절로 34절의 내용을 보겠다. 여호야킨 왕이 감옥생활을 평생하다가 풀려나는 모습이다. “유다 왕 여호야킨이 사로잡혀 간 지 삼십칠 년 곧 바벨론의 에일모르다 왕의 즉위 원년 열두째 달 스물다섯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킨 왕의 머리를 들어 주었고 감옥에서 풀어 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좌수의 의복을 갈아 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여기 52장 34절에 보면 여호야킨 왕이 정량을 종신토록 날마다 쓸 것을 받았다고 나와 있다. 이 기록의 토권이 아니라 크서 발견되었다. 아카드어로 기록되어있다. 매일같이 필요한 것을 주었다는 기록이다. 성경이 역사적 사실임을 증명하고 있다. 이 시기는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였던 시기였기 때문에 다니엘의 도움을 받았을 것이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많은 불신앙과 잘못으로 속국생활, 포로생활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와 후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복음가진 언약의 백성을 결코 버리시지 않으신다.

2.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교훈과 복음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1) 우리는 우리 자신이 비록 무능하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과 천명, 소명, 사명을 거부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W.I.O 즉, With, Immanuel, Oneness로 우리들을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부족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팀을 붙이실 것이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받았을 때 거부하였다. 모세도 그랬다. 그러니까 아론을 붙여주셨다. 여호수아와 예레미야도 주신 소명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그리고 사실 그 리더자의 길은 무척 어렵고 고통스러운 길이었다. 모세와 여호수아, 예레미야의 길은 어려운 길이었다. 특히,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였다. 말을 못하게 하기도 하고, 땅 구덩이 속에 넣기도 하였고, 여호야김 왕은 예레미야가 보낸 하나님의 말씀들은 한 장씩 찢어서 불에 태우기도 하였다. 예레미야 38장 6절을 보겠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 뜰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했다고 듣기 싫다고 진흙이 있는 구덩이 속에 넣어버렸다.

(2)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이 말씀과 기도를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알려주고 있다.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읽겠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사실 우리들에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신 것도 축복이다. 왜냐하면 그 부르짖는 기도 또한 반드시 실현될 것이기 때문이다. 눈물로 개인의 문제를 두고 함께 기도제목을 두고 부르짖어 기도해 보자. 결국은 다 응답

된다.

(3) 예레미야는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 전달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제자 비록을 세워서 언약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였다. 예레미야 36장 32절 말씀을 보겠다.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베리아의 아들 서기관 비록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 하였더라” 여호야김 왕이 말씀을 불태웠지만 포기하지 않고 더 많이 기록했다. 우리가 전도했을 때 사람들이 받지 않더라도 포기하면 안 된다.

(4) 예레미야는 237나라 5천 종족들의 미래를 미리 보고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였다. 예레미야서 46장부터 51장의 내용은 여러 나라를 향한 예언이다. 애굽에 대한 예언, 블레셋에 대한 예언, 모압과 암몬 족속에 대한 예언, 다메섹과 엘람과 바벨론에 대한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다. 즉, 237나라와 5천 종족을 향해서 메시지를 한 것이다. 복음 안에 있으면 열방의 미래가 보이게 될 것이다. 그때 우리들은 그들은 살릴 수 있다. 이번에 히로시마 사모님이 나고야의 한 젊은 목사님 이야기를 말씀하셨다. 나고야 시의원에 나간다고 한다. 본인의 꿈이 복음 받기 전에 정치인이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어떤 의사를 전도했는데 복음 받고 이야기 하는 중에 정치의 길이 열렸다. 일본에는 이렇게 복지를 하고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 중에 국회의원이 많다. 복음을 알고 보니까 이 나라를 어떻게 살려야 할지 가 보인 것이다. 그래서 미션을 붙잡는 것이다. 내가 행복한 미션을 찾아내야 한다. 이렇게 기도를 했을 때 미래가 보이고 다른 나라의 미래가 보이는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무한대의 영적인 힘’이다. 특히 지금은 세계화와 국제화시대이다. 중직자들과 후대들이 이러한 능력이 있어야 현장을 치유하고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다. 이번에 미국에서도 세계박람회도 하는데, 한국에서 많은 상을 받았다. 시대의 흐름을 알아서 미래의 많은 제품을 개발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영적으로 이런 답을 줄 수 있어야한다. 복음적으로 살리는 법을 알려줘야 한다. 이상승배하고 돈만 알고 선교 안 하는 삶은 안 된다. 그러면 강대국도 다 멸망한다.

오늘도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CVDIP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기로 하겠다. 이 영적인 CVDIP는 성경에 등장한 램프 7명들의 승리의 비결 5단어이다.

1. Covenant 언약이다. 비록 우리들이 노예, 속국, 포로가 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복음과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 나라와 민족을 끝까지 지켜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개인 개인도 내가 포로 같고 속국 같고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반드시 만들어 가신다. 언약의 메시지만 있으면 된다. 기도만 하면 된다.

2. Vision 비전이다. 우리들의 비전은 237나라 5천 종족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언약과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아갈 때 그 나라와 민족이 축복받을 수 있다.

3. Dream 꿈이다. 만약 우리들이 예레미야처럼 24시간 전도와 선교와 나라와 민족과 후대를 위하여 피, 땀, 눈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이 후대와 전도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문을 위한 헌이 있어야 한다. 그때 내가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게 절대목표고 절대미션이다.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안 행복한 게 아니다. 내가 살아야 할 절대미션에 도전하면서 행복한 나의 현장이 있어야한다. 우리 후대 램프들이 생명을 걸고 도전할 현장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

4. Image 이미지이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와 에덴의 축복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조금만 집중한다면 환상과 미래가 생생하게 보일 것이다. 마귀가 주는 염려, 근심, 걱정을 생각하지 마라. 우리는 올인할 것에 올인하면 된다. 생생하게 그려져야 한다. 헌당과 램프 후대를 위해서 올인해야 한다. RUTC를 위해서, 세계복음화와 산업선교를 위해서 올인해야 한다. 어느 큰 교회 갔더니 새벽기도에서 50억 현금해서 계약했다고 한다. 지금 우리는 100억을 빚지고 10년 만에 50억 빚 갚았다. 저는 한 사람이 갚았으면 좋겠다고 기도한다. 하나님은 앞으로 제3성전, 제4성전을 주실 것이다. 후대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이 복 주실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게 생생히 그려져야 한다. 지난 주간에 제가 3, 4년 동안 출석체크한 가운데 가장 많이 대면과 비대면으로 예배드렸다. 우리는 항상 3천 제자의 목표를 두고 기도해야겠다. 앞으로 램프 후대들이 어떤 사업을 한다면 10억씩 투자해야 한다. 후대들이 다 할 수 있는데, 마중물이 없다. 인제까지 후대들이 먹고 사는 걱정보다 다 죽을까. 그러면 3단체를 능가할 수 있다. 그 그림을 사실적으로 그려라.

5. Practice 지속적인 실천이다. 예레미야처럼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절대언약과 절대미션을 위해 도전해 보기 바란다. 절대불가능이 절대가능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영적인 플랫폼, 파수방대, 영적인 안테나를 세팅하기 위해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쓰임 받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레미야의 인생을 통해 예레미야를 부르신 그 소명과 피, 땀, 눈물의 헌신과 그 열매를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하나님이 주신 Heavenly Talent를 발견하여 도전하도록 하옵소서. 반드시 우리 교회와 교단과 한국교회를 통해서 또 함께하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237나라와 5천 종족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